

‘로써’의 문법화에 대한 재론

양언*

|| 차례 ||

- I. 머리말
- II.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 III. ‘로 써’의 출현 양상 및 ‘써’의 성격
- IV. 맺음말

【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로써’의 소급형인 ‘로 써’의 출현 양상을 검토하면서 ‘로써’가 문법화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가 아님을 밝히는 데 있다. 선행 연구에서 격지배 변동이라든가 재분석이라든가 ‘쓰-’의 의미가 왜 약화되었는지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 써’의 출현 시가나 출현 문헌 등을 중시해서 ‘로 써’가 한문의 ‘以NP(로)’ 구문을 지나치게 번역한 결과임을 밝혔다. 그 중의 ‘로’는 한문 ‘以’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문법형태 ‘로’이며 ‘以NP로’ 중에 현결된 ‘로’이기도 하다. ‘써’는 한문 ‘以’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번역한 전이어였을 뿐이다. 따라서 ‘써’는 ‘로 써’의 구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통사 구문에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결 방식과 번역 방식은 한문의 ‘以’에만 그치지 않고 비슷한 성격을 지닌 ‘與’, ‘使’, ‘及’에도 나타났는데 이것은 또한 ‘로 써’가 문법화된 것이 아님을 보여 주는 현상이다.

주제어 : 문법화, 격지배 변동, 재분석, 한문 번역, 현결 방식, 전이어

* 중국 소주대학교 한국어과 교수

I. 머리말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다. 어느 특정한 시기의 공시태(共時態)도 거시적으로 보면 정체된 상태가 아니라 변화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어의 끊임없는 변화는 언어 내부 기제(機制)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언어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한국어의 언어 현상을 해석·설명할 때 불가피하게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문헌 자료, 즉 중세, 근대의 한국어, 심지어 고대 한국어의 언어 사실을 고려해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문헌 자료는 대부분 한문 원문을 번역하여 이루어진 번역, 언해 문헌이므로 많은 적든 번역 과정에서 한문 원문의 문법이나 어휘, 또는 번역 방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중세어의 한글 문헌이 보여 주는 언어는 전반적으로 실제 한국어보다 ‘漢文化’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오랜 역사를 갖는 고품의 구결로 말미암아 의고적이며 ‘文語的’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안병희, 1973:75) 이에 대해 이현희(1994:21-22)에서도 “중세국어의 문헌어는 대개가 漢文 原文을 諺解한 翻譯語”이며 “대개의 중세국어 문헌이 실제의 현실언어나 구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심지어 “『釋譜詳節』이나 『月印釋譜』 등에 담겨 있는 중세국어가 다른 문헌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口語的이라고 말해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문헌들의 국어가 반드시 당대의 구어인 것은 아니”며, “한문 원문이 전하지 않을 뿐이지, 번역어가 아니라고 할 근거도 없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는 중세 한국어의 언어 현상을 살펴볼 때 단순히 한국어 내적 측면에서 파악하면 안 됨을 우리에게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태영(2000)에서 한문의 ‘輿’에 대응하는 중세 한국어의 ‘~와 다뭇, ~로 다뭇, ~와로 다뭇, ~와 다뭇’하여,

~로 다뭏혀, ~와 더브러, ~로 더브러, ~와로 더브러, ~를 더브러, ~와 햏야’ 등등 형태소 및 구성은 “한문 번역의 영향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특이한 통사적 구성체”라고 일찍이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이(특이한 통사적 구성체)를 체계화하여 한문 문법의 영향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중세 한국어 내지 근대 한국어를 연구할 때 한문의 영향을 아예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현대 한국어 ‘로써’의 소급형 ‘~로 써’ 또는 ‘~로써’는 번역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상으로서 한국어 내적인 현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고 선행 주장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행 연구에서 대부분 ‘로써’를 한국어 언어 내부의 변화 현상으로서 문법화에 의해 형성된 후치사라는 문법형태로 처리해 왔다. 격 지배 변동 규칙이든 생성문법이론이든, 통시적 변화로든 ‘로써’의 형성을 한국어 내부 변화에서만 논의하는 것은 각각 허점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고 2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3장에서 중세 문헌 자료를 통해서 ‘로써’의 출현 양상을 살펴보고 ‘로써’의 형성에 대해서 다시 고찰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로써’ 중의 ‘써’에 대해서는 동사 ‘쓰-’와 부사형어미 ‘-어’가 결합하여 형성되었다는 것에 이의(異議)가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 한국어에서 동사 ‘쓰-’가 지배할 수 있는 격은 대격(對格) ‘를/을’이고 조격(造格)인 ‘로’가 아니다. 이렇듯 ‘로써’의 형성을 설명하는 데 무엇보다도 ‘로’와 ‘써’

의 공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 여러 방안을 제시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홍윤표(1983=1994:543-560)에서 ‘~로 더브리’의 문법화 과정을 논의하면서 ‘를>로’의 변동이 한국어의 일반화된 현상이라고 하고 ‘로써’도 ‘-를 써>-로 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안주호(1997:38)에서 ‘드러, 더브리, 브터, 써, 다가’ 등 후치사들이 ‘로’와 결합하여 쓰이는 현상은 유추 기제(類推機制)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드러, 더브리, 브터, 써’ 등이 가지고 있는 의미기능이 ‘로’와 유사한 데 유추되어 ‘로’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미기능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히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써’의 의미기능이 ‘로’와 유사할지 모르지만 중세, 근대의 한국어에서 ‘드러’, ‘더브리’는 “공동”을 나타내고, ‘브터’는 “출발점”을 나타내는데 이들 의미기능은 모두 ‘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그렇게 보면 격 지배 변동 규칙은 단지 ‘를 써>로 써’의 경우를 설명할 때 유용하고 일반화된 현상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를 써>로 써’의 과정을 인정하더라도 역시 ‘를’이 굳이 ‘로’로 변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¹⁾ ‘를>로’의 격 변동을 야기한 원인을 설명할 때 보통 후행 용언의 의미가 약화되어 초래

1) 홍윤표(1994)에서의 ‘~로 더브리’에 대한 논의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홍윤표(1994)에서는 ‘로 더브리’ 중의 ‘로’가 동사 ‘더블다’가 문법화되어 후치사로 변한 다음 후치사의 격지배 변동규칙의 적용을 받은 결과라고 보고 그 후치사화의 과정을 ‘를 더브리>로 더브리>와 더브리>더브리’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로 더브리>와 더브리’의 과정을 상정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16세기의 언해 문헌에 ‘로 더브리’와 ‘와 더브리’가 공존하고 있지만 뒤에 갈수록 ‘와 더브리’가 거의 소멸되고 대신 ‘로 더브리’가 나타나는 것이 태반이다. 다시 말하면 문법화의 순서는 ‘와 더브리>로 더브리’로 상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또 당시의 언어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한 결과라고 하였는데 ‘로 써’의 경우 후행된 ‘써’는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로 약화되었는지,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 변화를 거쳤는지도 역시 정확히 설명한 답이 없는 듯하다. 이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로’ 때문에 의미 약화되었다고 한다면가 의미 약화 때문에 ‘로’로 변했다고 한다면가 하는 것은 순환논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사실은 ‘로 써’에 대해서 일찍이 홍윤표(1969:119)에서는 “이 『으로』와 『써』는 각각 分離되어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때 『써』가 文章의 앞에 놓일 수도 있”으며 “이것은 번역 상에서 『以』의 영향인 것 같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시 말하자면 ‘로 써’의 구성이 한문의 영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세, 근대 시기의 문헌 자료를 살펴볼 때, ‘로 써’의 출현이 ‘를 써>로 써’의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로 → 로 써’의 변화 경로를 겪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²⁾

한용운(2001)에서는 문법화 이론의 재분석으로 ‘-로써’의 형성을 분석한 바 있다. 한용운(2001:57)에서는 재분석(reanalysis)을 “연결 형식을 원래의 구조가 아닌 다른 구조로 인식하려는 언중의 심리적 태도”이며 “구성 성분들의 형식이나 범주의 변화가 아니라 구성 성분들 사이에 존재하던 형태소 경계나 단어 경계가 소멸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로써’의 경우에 있어서는 ‘로 # 써’의 통사 구조가 단어나 형태소의 경계를 넘어 둘이 하나의 형태로 융합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로 # 써>로써’의 형성을 설명할 때 유용한 이론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도 반드시 설명해야 할 것은 역시 ‘를>로’의 변화 과정이나 변화 요인이 무엇인지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한용운(2001: 125~126)에서 제

2)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시된 예문 (27), (28), (29)의 일부를 다음 (1)로 가져와 보기로 한다.

(1) 가. 聖人入 穢穢 穢穢 穢穢 이 곤 穢穢니(聖人之用 穢穢이 如是 穢穢니)<법화2:218a>(27나)

나. 너를 穢穢 穢穢 穢穢유리니(雇汝除糞)<법화2:206a>(28가)

다. 이러 穢穢 일로 穢穢 恒沙劫을 供養 穢穢와도(如斯等事로 以用 供養於 恒沙劫 穢穢와도)<법화2:257>(29가)

라. 남지는 穢穢로 穢穢 穢穢를 삼고 穢穢는 穢穢로 穢穢로 穢穢아름다오 穢穢 삼 穢穢니(男은 以强爲貴 穢穢고 女는 以弱爲美 穢穢니)<내훈2:7b>(29라)

[() 안의 구결문은 필자가 붙였음]

위의 예문들은 일견 동사로서의 ‘쓰-’가 점점 ‘로’ 뒤에만 나타날 수 있는 ‘穢’로 변화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구결문을 참고로 보면 앞뒤의 ‘쓰-’나 ‘穢’는 대응되는 한문도 다르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가)의 ‘쓰사미’는 한문의 ‘用’을 번역한 것이며, (1나)는 한문의 ‘雇’를, (1라)는 한문의 ‘以’에 해당하는 것이었을 뿐이다. (1다)의 경우도 ‘以用’이 나란히 있으나 『법화경언해』에서 다른 ‘以’를 ‘穢’로 번역한 경우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역시 ‘用’을 번역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용운(2001)의 예문이나 논의에 의해서 ‘穢>로 穢’의 변화 과정을 도출할 수 없으므로 역시 허점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즉 한용운(2001)은 ‘로 穢’가 단어 경계가 사라지면서 한 덩어리인 ‘로穢’가 형성되었다는 것만 지적했을 뿐이지, 왜 굳이 ‘로’만이 ‘穢’와 공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³⁾ 임창국(2008:259~260)은 이 접근 방법의 약점을 정확하게 포착

3) 한용운(2001)은 의미면에서 ‘쓰-’는 ‘도구나 수단을 이용하-’라는 동사의 의미가 아니라 ‘도구나 수단’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 변화 더불어 ‘로’와 ‘穢’의 단어 경계가 사라지면서 재분석이 일어나 조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논의하였는

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한 바 있다.

(2) 이 설명은 ‘쓰-’가 동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형태 통사적 양상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찰하는 데 그치고 있다. 즉 “문법화 이론”의 재분석 기제에 대한 설명은 관찰적 충족성(observatory adequacy)에 머물러 있다. 그 형태 통사적 과정에 대한 더욱 정밀한 관찰과 설명적 충족성(explanatory adequacy)이 만족되는 설명이 요구된다. (임창국 2008: 259~260)

임창국(2008)은 생성문법이론으로써 ‘로’와 ‘씨’의 공기 관계의 설명을 시도하였다. 다음 예문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 (3) 가. 조상들은 [감초를 한약재로] 썼다.
- 나. 조상들은 [한약재로써] 많은 병을 치료했다.

[임창국(2008) 재인용]

(3가)에서 보는 것처럼 타동사 ‘씨’는 목적어 명사구와 ‘로’구를 함께 단일 보충어로 선택한다. 여기서 [감초를 한약재로]는 [감초가 한약재이다]의 주술관계로 해석되는 소절이기 때문에 ‘로’도 서술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한다.⁴⁾ 따라서 동사 ‘쓰-’가 자신의 소절 술어 ‘-로’구를 먼저 취한

데 ‘씨’ 자체가 ‘도구나 수단’의 의미로 쓰인다는 점은 의심스러운 문제로 남겨두기로 하겠다.

4) Frellesving(2001)은 일본어와 한국어 계사(copula)들의 음운적 대응을 분석하며 한국어의 ‘로’, ‘다가 일본어 계사 ‘to’와 어원적으로 동일어근이라 주장한다. 이 주장의 기본 전제는 한국어의 ‘로’가 계사(서술성 표지)라는 것임을 주목한다. 임창국(2008)은 임창국(1999), Yim(2004), Frellesving(2001)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어의 ‘로’도 서술성 표지임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에 후치사로의 재분석이 진행되어 ‘로써’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임창국(2008)의 논의는 ‘로’와 ‘써’의 공기 관계를 설명하는 데 이점이 있으나 이영제(2012:635-636)에서 지적하였듯이 동일한 분포, 동일한 기능, 동일한 형태의 ‘로’를 격 표지와 서술적 기능소로 동형이의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법 기술의 복잡성을 더하게 된다. 특히 이런 분석 방법을 또 다른 소위 소절 동사 ‘삼다’에도 적용하는 것은 더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⁵⁾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하자.

(4) 가. 그는 [자연을 벗으로] 삼았다.

가'. 그는 자연을 [벗삼아] 좋아한다.

나. 우리는 [역사를 거울로] 삼았다.

나'. 우리는 역사를 [거울삼아] 더욱 분발하자.

(5) 가. 사름 주기디 아니호므로 근본을 사마<내훈2:87b>

나. 거래를 통티 아니호므로 뜨들[뜰+을] 사미니<금삼 서2a>

(4)는 현대 한국어의 경우이다. [자연을 벗으로] 중의 ‘로’가 기술적 표지이며 핵인데도 불구하고 ‘로 삼아’의 구성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로’가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벗으로 삼다’, ‘거울로 삼다’는 ‘로’가 생략되면서 재분석의 과정을 거쳐 한 단어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5)는 중세 한국어의 경우인데 현대 한국어의 ‘삼다’ 구문과 대조적이다. 문장 중의 소절 보충어는 [NP를 NP로]의 구성이 아니고 [NP로 NP를]의 구성인데 이 경우에 ‘로’가 핵인가, ‘를’이 핵인가, 혹시 ‘를’도 서술성 표지라고 할 수 있는가 등 더 복잡한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5) 일반적으로, ‘삼다’와 같은 이른바 소절 동사들이 자신의 보충어로 소절을 선택하고 그 소절의 핵이 바로 ‘로’이기 때문이다.(임창국 2008:263)

이영제(2012)에서는 후치사 ‘로써’를 불완전 계열이었던 ‘써’가 역사적으로 대격을 표시하는 조사 ‘로’와 공기하는 통사적 구성으로부터 문법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로’가 대격을 표시한다는 관점은 황국정(2009)의 관점을 받아들인 것이다. 황국정(2011, 2012)에서 ‘로’를 도구이자 대상을 표시하는 대격의 기능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로’를 대격 ‘를’의 이형태로 설정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6) 가. 外道 | 띄여 마르니 갈호로 衣葉中에 녀허 王손디 흥뻬가
 (外道嫉之 密以利刀 內衣葉中) <月釋25:23a>
 나. 長者 | 보비엿 큰 술위로 아들들홀 골오 주니 虛妄타 흐려 몬흐려
 <月釋12:33a> (황국정, 2011:262)

그리고 타동사의 대상 논항에 ‘-를’이 아닌 ‘-로’가 쓰이는 구문은 역사적 근거뿐만 아니라 현대의 경상 방언 등에서도 확인된다고 언급하였다.

- (7) 가.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 술로 전부 한 동우씩 해영어라.
 나. 큰 아는 밭으로 묵는데이. (황국정, 2011:262-263)

그런데 이와 같은 설명은 ‘로 써’의 결합을 해석하는 데 편리성을 드러냈지만 ‘로’와 ‘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안겨 주게 된다. 또한 지역 방언의 ‘로’의 대상성에 대해서는 이영제(2012:636)에서 지적하였듯이 경상 지역 등의 지역 방언이 현재 표준어를 이루는 중부 지방의 지역어와 어떤 과정을 거쳐 언어 교섭이 일어났는지, 왜 중부 지역어에는 대상 논항의 ‘로’가 더 이상 분포하지 않는지 등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황국정(2009, 2011)에서 제시한 예문 중의 ‘갈호로’, ‘술위로’ 등 ‘NP로’가 대상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대부분 해당 한문은

‘以’자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8) 가. 하늬 보빅엿 오스로 모매 감고 여러 가짓 香油를 붓고<석상 20:10a>(以天寶衣로 而自纏身 ㅎ고)
 나. 外道ㅣ 띄여 ㅁㅁ니 늘카븐 갈호로 衣葉中에 녀허<원석25:23a>
 (外道嫉之 密以利刀內衣葉中)
 다. 사르미 흔 춘 소노로 더운 소내 드히면(譬如有人以 一冷手로 觸於熱手 ㅎ면)<농업3:11b>

이상 예문은 황국정(2009)에서 몇 개만 가져왔을 뿐이다. 황국정(2009:147-148)에서 대상의 ‘로’에 관한 예문을 총 17개 제시하였는데 한문 원문을 함께 제시한 것도 있고 제시하지 않은 것도 있다. 하지만 그 중의 13개가 해당 한문 중에 ‘以’자가 들어 있다. 나머지 4개는 해당 한문 원문을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지, ‘以’자가 없다는 근거는 없다.⁶⁾

- (9) 가. 溫水 冷水로 左右에 느리와 九이 모다 잇기스븐니<월곡8a>
 나. 二祖阿難尊者ㅣ 正法으로 商那和修의 맞디고 寂滅에 드니라<석상24:7a>
 다. 獄卒이 긴 모도로 모매 박고 비슬홀 지지더라<월석23:87a>
 라. 흔 물로 느치 쓰려 오라거사 썩사<월석22:50a-b>

다시 말하자면 언해문 중의 ‘NP로’는 다 한문 원문 중의 ‘以NP(로)’ 구문에 대응되어 있으므로 언해문 중의 ‘로’는 한문의 ‘以’와 큰 관련성이 있

6) 이현희(1994)에서 일찍 지적하였듯이 『석보상절』이나 『월인석보』 등에 담겨 있는 문헌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어적이라고 말해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헌들의 한국어가 반드시 당대의 구어인 것은 아니며, 한문 원문이 전하지 않을 뿐이지 번역어가 아니라고 할 근거도 없다.

다고 논의할 여지가 더 많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접근 방법의 문제점을 다시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격지배 변동 규칙은 과연 한국어의 일반화된 언어 규칙인지, ‘를>로’로 변화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동사 ‘쓰-’가 의미 약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은 문제는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둘째, 재분석에 의한 ‘로씨’의 형성은 ‘로 # 씨> 로씨’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이점이 있었지만 왜 ‘로’만이 ‘씨’와 공기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생성문법이론의 소절 복합술어는 왜 항상 ‘로’가 ‘씨’ 앞에 출현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설명력 있는 답을 제공해 줄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NP를 NP로] 중의 ‘로’에 서술적 표지의 기능을 부여한 것은 또 다른 문법적 기술의 부담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소위 같은 소절 동사인 ‘삼다’ 구문의 상황을 해석할 때 또 다른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넷째, ‘씨’에 선행된 ‘로’가 원래부터 대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가설은 공기 관계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경상 지역 등의 지역 방언이 현재 표준어를 이루는 중부지방의 지역어와 어떤 과정을 거쳐 언어 교섭이 일어났는지, 왜 중부 지역어에는 대상 논항의 ‘로’가 더 이상 분포하지 않는지 등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로씨’의 형성을 언급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로 씨’가 출현 시기 나 출현 문헌의 성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문헌 자료를 살펴보면 ‘로씨’의 출현은 16세기 후기부터 직역 문헌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16세기 후기의 언해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로씨’, 또 ‘씨’의 출현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로씨’의 형성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Ⅲ. ‘로 써’의 출현 양상 및 ‘써’의 성격

1. ‘로 써’의 출현 양상

중세시기의 ‘로 써’는 16세기 후기의 직역 언해 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같은 한문을 두 번 번역한 『번역소학』과 『소학언해』를 대비해 보면 더 쉽게 ‘로 써’의 출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10) 가. 공이 보야호로 효도로 써 天下를 다스료되(公이 方以孝로 治天下) <小學5:46a>
 가. 공이 보야호로 효도로 턴하를 다스료되(公이 方以孝로 治天下) <飜小7:12a>
 나. 늙은 사람이 즉제 閒暇흔 시절로 써 廣을 위하야 이 계교를 닐은대(老人이 卽以閒暇時로 爲廣言此計흔대) <小學6:82a>
 나. 그 늙은 사람이 한가흔 저기 廣드려 이 계교를 니룬대(老人이 卽以閒暇時로 爲廣言此計흔대) <飜小9:88b>
 다. 병이 될가 저픈 이는 可히 고기즙과 민 포육과 젓과 或 고기 적음 애로 써 그 滋味를 도을 썬이언딩(恐成疾者는 可以肉汁及脯醢或肉少許로 助其滋味언딩) <小學5:51b>
 다. 병이 도일가 십브거든 고깃즙과 보육과 젓과 或 고기를 적기 써 마술 도을만 ㅎ고(恐成疾者는 可以肉汁及脯醢와 或肉少許로 助其滋味언딩) <飜小7:18b>

(10가)는 『소학언해』에서 나타나는 용례인데 의역 문헌인 『번역소학』과 대비하면 ‘써’가 첨가한 형태이라는 느낌을 들게 한다. 남풍현(1972)에 의하면 (10가)은 漢語의 ‘以’와 한국어의 ‘로’를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번역한 것이며 (10가)는 漢語의 ‘以’를 ‘쓰다(用)’의 뜻을 가진 自立形態로 과

약하여 번역한 것이다. ‘써’ 앞에 ‘로’가 아닌 목적격조사가 쓰인 용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⁷⁾ 중세시기부터 ‘以’에 對應하는 ‘써’는 거의 절대적으로 ‘로’와 연결되는 것은 漢文 懸吐에서 ‘以…로’의 呼應關係가 성립된 것을 前提로 다시 ‘以’를 자립형태 ‘써’로 파악하였던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0나)는 (10나')에 비추어 보면 ‘저기[적+의] 써’로 실현된 것이 아니고 ‘시절로 써’로 번역되어 있다. 특히 이 경우의 ‘로 써’는 현대 한국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단, 도구’의 의미가 아니고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유 의할 필요가 있다. 즉 이 경우의 ‘로 써’는 절대 문법화되어 형성된 도구격,

7) 동사로서의 ‘써’(또는 타동사 ‘쓰-’의 부사형 ‘써’)는 반드시 ‘로’에만 연결되어야 한다는 必然性이 없다. 다음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써’ 앞에는 ‘로’가 아닌 목적격조사가 쓰일 수도 있다. 이는 한문의 ‘以’를 타동사로(또는 이 경우의 ‘써’를 타동사로) 파악하여 번역한 결과로 해석되거나 다른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을 듯하다.

가. 敢히 업신인 父母의 기타신 몸을 써 위티흐 되 든니디 아니하며(不敢以先父母之遺體로 行殆히며)<小學4:19a>

나. 公侯의 夫人이 靑과 纁을 써 더히고 …列士의 안해 朝服을 써 더히고(公侯之夫人이 加以紘纁히고 … 列士之妻 | 加之以朝服히고)<小學4:45b-46a>

다. ㄱㄹ초되 人倫을 써 히게 하시니(教以人倫히시니)<내훈1:19a>

(가)의 ‘써’를 빼면 목적격을 지배하는 동사가 사라져 문장이 완전히 비문이 된다. 이 경우의 ‘써’는 타동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나)의 ‘써’는 빼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더하다’는 ‘조복’을 직접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朝服을 加히시고(加朝服)<논어2:60a>) 한용운(2001:63)에서는 조사화한 동사 활용형이 ‘을’ 뒤에 분포하게 되면 그 문장은 중의적인 문장이 되기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목적격 조사 ‘을’이 바로 뒤에 분포한 동사 활용형의 목적어 표지로 해석될 수도 있고 맨 뒤에 분포한 동사의 목적어 표지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의 경우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人倫’은 겉으로 보면 ‘써’의 목적어인 듯해 보이지만 뒤의 ‘히-’의 논항으로 볼 수 있다. 이현희(1994:84)에서는 “‘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디’에 통합되어 있는 동사의 대동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여기의 ‘히-’는 타동사 ‘ㄱㄹ초-’의 대동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人倫’이 ‘써’의 논항이 아니고 뒤의 ‘히-’의 논항이 되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는 것이다.

혹은 도구격 구성이 아니다.

(10다')의 '써'는 명사구 'NP를'을 지배하는 동시에 그 앞에 부사어 '적기'가 선행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써'가 동사 '쓰-'의 활용형으로 다루어야 마땅한 것이다. 같은 원문인데도 이에 비해 (10다)는 '로 써'의 구성으로 나타나 있다. (10다~다')의 경우 '를 써>로 써'의 문법화 과정을 보여 주는 용례로 간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가), (10나)의 경우는 문법화된 결과로 보기가 어려운 용례들인 셈이다.

중세 한국어에서 '以'를 타동사로 보고 '를 써'로 번역한 용례도 가끔 나타나 있지만 대부분의 '를 써'는 한문의 '用'에 대응된다. 그리고 '以'가 '로'를 나타내는 기능이 확대되면서 '以NP로' 현결(懸訣) 방식으로 고정화됨에 따라 '以NP로'의 번역도 'NP로 써'로 고정화되는 경향이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반대로 '用'자가 '以'와 의미 분화가 일어나면서 근대 시기 내지 현대 시기의 한국어에서도 계속 타동사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 (11) 가. 敢히 업스신 父母의 기티신 몸을 써 위티흔 디 든니디 아니흐며
(不敢以先父母之遺體로 行殆흐며)<小學4:19a>
나. 그 쓰디 이를 베시니라(其意以此 | 니라)<金三1:5b>
다. 大를 브터 小를 업시우시며 圓을 써 偏을 업시우디 마라실씨라(不
依大흐야 輕小흐시며 不以圓흐야 慢偏也 | 라)<法華5:34a>
- (12) 가. ㅁㄹ츨디 人倫으로 써 흐시니(教以人倫흐시니)<小學1:9a>
가. ㅁㄹ초디 人倫을 써 흐게 흐시니(教以人倫흐시니)<內訓1:19a>
나. 일 혼인흐며 접어서 빙례혼은 사름을 투박혼으로 써 ㅁㄹ침이오
妾과 媵이 數 | 업슴은 사름을 음란혼으로 써 ㅁㄹ침이니(早婚少
聘은 教人以倫 | 오 妾媵無數는 教人以亂이니)<小學5:64a>
나. 일 저머서 혼인호든 사름을 경박히 사오납게 ㅁㄹ츨미오 접을 수
업시 호든 사름을 어즈러우를 ㅁㄹ츨미니(早婚少聘은 教人以倫

| 오 妾媵無數는 教人以亂이니<飜小7:31b>

- (13) 가. 부터를 보스느니라 神力을 써 轉輪聖王이 드와야(用神力成轉輪聖王)<월석21:205b>
- 나. 옛데 옷 바블 써 날로 이에 니를어노 커늘(何用衣食호야 使我至此이어노 커늘)<법화2:240a>
- 다. 智慧工匠을 써 人我山을 파 허러(用智慧工匠호야 鑿破人我山호야)<금강서8a>
- 라. 鈔二百貫을 써 드려와(用鈔二百貫取來)<伍倫3:31a>
- 마. 婚姻은 네로브터 良媒를 쓰니(婚姻自古用良媒)<伍倫2:16b>

(11)은 한문의 ‘以’를 타동사로 삼아 번역한 결과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문의 ‘以’는 원래 동사에서 개사(介詞)로 문법화된 품사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동사의 성격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 그러나 (12)에서 보듯이 뒤로 갈수록 ‘를 써’로 번역한 용례도 ‘로 써’로 변하는 경향이 드러나게 되었다. (13)은 ‘用’을 번역한 용례들인데 중세 시기나 근대 시기나 확일적으로 ‘를 써’로 번역하고 있는 것은 ‘以’의 경우와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해서 이태영(1988:40)에서 ‘用’은 동사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는 반면 ‘以’는 단독으로는 동사로 쓰이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약에 ‘를 써’로 써’의 과정을 한국어 내부에서 상정한다면 ‘用’에 대응하는 ‘를 써’도 ‘로 써’로 변해야 될 텐데 이는 근대시기의 언어 내지 현대 한국어에서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를 써’란 구문이 남아 있는 것이다.

아래 (14)는 ‘NP로 써’가 개사와 함께 쓰여 이른바 분열문(cleft sentence)에 나타나는 용례들이다.

- (14) 가. 盧氏 글오되 사람이 써 즘승의게 다른 바는 그仁과 義 이시모로
 써니(盧氏曰人所以異於禽獸者는 以其有人義也 | 니)<小學

6:59b>

- 가. 盧氏 닐오되 사람이 즘승에 달은 주른 仁과 義와 이실스니(盧氏 曰人所以異於禽獸者는 以其有人義也 | 니)<飢小9:64b~65a>
- 나. 흔 음식을 어드면 반드시 몬져 써 어버이를 머기느니 엇딘 연고오 어버의 입이 내 입에서 重^함으로 脍^오 흔 오솔 어드면 반드시 몬져 써 어버이를 脍^피느니 엇딘 연고오 어버의 몸이 내 몸에서 重^함으로 脍^라(得一食^{하면} 必先^以食父母^{하느니} 夫何故^오 以父母之口 | 重於己之口也 | 오 得一衣^{하면} 必先^以衣父母^{하느니} 夫何故^오 以父母之體 | 重於己之體也 | 라)<小學5:74b>
- 나. 흔 바벌 어드면 반드시 몬져 어버시를 머기느니 엇데오 어버의 이비 내 입두곤 脍^홀스니라 흔 오솔 어드면 반드시 몬져 어버시를 脍^피느니 엇데오 어버의 모미 내 몸두곤 脍^홀스니라(得一食^{하면} 必先^以食父母^{하느니} 夫何故^오 以父母之口 | 重於己之口也 | 라 得一衣^{하면} 必先^以衣父母^{하느니} 夫何故^오 以父母之體 | 重於己之體也 | 라)<飢小7:43b>

(14)와 같은 분열문 구문 유형은 주로 ‘以’가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에 한하여 나타난다. 의역에서는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형 ‘-을식’가 사용되어 대조적이다. 이 경우의 ‘로 써’는 현대 한국어에서 “도구, 수단”을 나타내는 ‘로써’와 판이한 쓰임새를 보이고 있다. 물론 ‘를 써>로 써’의 문법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단정할 수 있다.

‘NP로 써’의 유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일부 경우에 ‘써’가 NP 앞으로 전치된 용례, 다시 말해서 ‘以NP’의 원문 어순을 그대로 반영한 듯한 용례도 드물기는 하지만 언해 문헌에 발견된다.

- (15) 가. 안해 곶오되 아비 써 先生이 德을 닷가 검약을 디키연는 연고로 賤^흔 妾으로 히여곰 피으와셔 슈견과 비슬잡게 하스니(妻 | 曰

大人이 以先生이 修德守約故로 使賤妾으로 侍執巾櫛 하시니
<小學6:54b>

가. ‘겨집이 널오디 우리 아버 先生이 덕을 닳고 검약을 가졌다 하야
날로 하여곰 피소와셔 슈건이며 빗슬 맞다시라 하시니(妻 | 曰
大人이 以先生이 修德守約故로 使賤妾으로 侍執巾櫛 하시니)
<籲小9:59a>

(15)는 ‘씨’가 ‘NP(로)’ 앞에 나타난 용례인데 이는 한문의 통사 구조에 따라 번역한 결과로 보인다. ‘엄의 연고로 씨’(以母故로)<小學6:32b>의 용례와 대비해 보면 여기서의 ‘씨’는 ‘NP로’ 앞으로 전치된 듯이 보인다.

‘씨’가 ‘NP’ 앞에 전치된 듯한 용례는 ‘씨’가 문법화한 후치사라는 견해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문의 어순에 따른 결과로만 볼 수도 있으나 ‘씨’ 자체의 성격과 관련될 수도 있다고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아래의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씨’가 직접 동사 앞에 쓰인 것은 ‘씨’가 한문의 ‘以’를 번역 차용한 결과이지만 언해문에서는 부사적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닌가 한다.

(16) 가. 文章을 호디...반드시 씨 理勝케 하며(爲文章호디 ...必以理勝
며)<小學6:9a>

가. 문장 호디...理 이기에 하며(爲文章호디...必以理勝 하며)<籲小
9:10a>

나. 비록 스스로은 디나 반드시 씨 네모 하시며(雖褻이나 必以貌 하시
며)<小學3:15b>

다. 나히 즘람이 씨 倍 하거든 아버로 섬기고 열히로 씨 즘라거든
오로 섬기고 다스 히로 씨 즘라거든 엇게로 조출디니라(年長以倍
則父事之 하고 十年以長則兄事之 하고 五年以長則肩隨之 나라)
<小學2:57b>

(16가)~(16다)는 일견 ‘씨’가 ‘NP’ 앞에 전치된 용례로 볼 수 있다. 한문의 구문 유형을 감안할 때 ‘理로 씨 勝케 흐-’, ‘네모로 씨 흐-’, ‘배로 씨 흐-’로 언해해도 무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씨’가 NP 앞에 선행하는 경우 NP 뒤에 ‘로’나 ‘에’ 등 조사가 있는 데 반해 (15)의 ‘NP’ 앞에 아무 조사가 없는 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NP’가 뒤의 ‘흐-’와 통합되어 복합동사 ‘네모흐-’, ‘배 흐-’의 용례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듯이 중세시기의 ‘로 씨’는 ‘를 씨’에서 온 듯한 용례도 있지만 ‘를 씨’의 통사 구조와 상관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로 씨’의 구조와 정반대인 ‘씨 NP로’의 구조도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의미적으로는 현대 한국어에서 “도구, 수단”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시간”(10나), “원인”(14, 15) 등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 경우의 ‘씨’는 도대체 어떤 존재로 처리해야 되는가, 또한 이 경우의 ‘로 씨’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설명해야 하는 절차가 남는다.

2. ‘씨’의 성격

언해 자료에서 ‘以’에 대한 협주(‘以는 씨 흐논 쓰디라’<月釋1: 釋譜 序 5b>)를 보면 韓國 先人들은 이 ‘씨’를 부사어에 대당되는 성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듯하다.⁸⁾ 여기의 ‘씨’는 동사 ‘쓰-(用)’가 부사형 어미 ‘-어’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8) 언해자료의 협주(또는 한자주석)은 그 유형에 따라 다음 4가지로 나누어진다.

體言類: ~이라. 語는 말쓰미라<훈언1a>

用言類: ~씨라. 得은 시를씨라<훈언2a>

副詞類: 뜯(말)이라. 相은 서르 흐논 쓰디라<훈언1b>

虛辭類: 입겅(겅)이라. 而 논 입겨지라<훈언2a>

형태론적으로나 통사론적으로 동사 ‘쓰-’와 많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동사인 ‘쓰-’는 ‘쓰고’, ‘쓰니’, ‘쓰며’ 등 여러 가지 활용형을 가질 수 있지만 ‘以’에 대응될 경우에 ‘써’로밖에 되지 않는다. 정재한(2003:46)에 의하면 동사 ‘쓰-’의 부사형 ‘써’가 쓰인 것은 한문의 ‘以NP’ 구조는 서술어를 한정하는 부사어적 기능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동사의 ‘쓰-’는 목적격 조사 ‘를’을 지배하는 경우가 일반적 현상인 데 비해 ‘以’에 대응되는 ‘써’는 조격 조사 ‘로’와 통합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러한 기능상의 변화는 적어도 ‘써’가 동사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다.

‘로 써’ 중의 ‘써’는 중세의 의역, 직역 자료를 대비해 보면 ‘써’는 한문의 ‘以NP’ 구조 중의 ‘以’를 지나치게 번역한 결과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안병희(1973)에서 한문의 ‘以’, ‘得’ 등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번역한 ‘써, 시러곰’ 등을 ‘전이어(轉移語, transitional word)로 처리한 바가 있다.

전이어는 한문 원문에 충실하기 위하여 비롯된 표현인 만큼 단순히 언해문에 쓰였다고 해서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법에 포함시켜 그대로 다루기는 어려운 이질적 요소이다. 기존의 일부 연구에서는 전이어를 문법화(grammaticalization) 과정을 거쳐 형성된 후치사나 보조사의 하나로 다루면서 당시 한국어의 일반적인 문법 질서로 간주하기도 하였다(홍윤표 1994, 안주호 1997, 한용운 2001 등). 그러나 전이어가 한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직역 문헌에만 나타난 요소인 점을 감안하면, 전이어를 연구할 때 한문 문법이나 번역 절차 등의 문제를 배제하고는 문법화 차원에서 수행된 연구는 그만큼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로써’는 ‘를 써>로 써>로 써’의 문법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 아니고 한문의 ‘以’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번역한 결과로서 ‘로’와 결합하여 형성된 것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써’ 앞의 ‘로’는 동사 ‘쓰-’가 지

배하는 격이 아니고 한문의 ‘以’의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로’일 뿐이다.⁹⁾

한문의 개사를 비롯한 허사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번역한 경우는 ‘以’에만 한하여 이루어진 현상이 아님은 주목할 만하다. 중세 한국어 내지 근대 한국어에서 ‘로 +X’식의 구성은 ‘로 써’ 외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들 용례들은 ‘로 써’가 문법화된 결과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17) 가. 赤岸사 므리 銀河로 다뭏 通히니(赤岸水與銀河通)<杜詩16:31b>
 나. 自然히 브리어 時로 다뭏 달오니(自然棄擲與時異)<杜詩19:40b>
 다. 暮春과로 다뭏 期約호라(再與暮春期)<杜詩7:14a>
- (18) 가. 집 므르과 보과로 히여곰 것게 히디 말오라(莫使棟樑擢)<杜詩3:11a>
 나. 民으로 히여곰 倦티 아니케 히며(使民不倦히며)<周易6:6b>
- (19) 가. 내 널로 밧 힘의 亡호리라 히니(予 及女로 傭亡이라 히니)<孟子1:6a>
 나. 管叔이 밧 그 群弟로 國에 流言 히야(管叔이 及其群弟로 乃流言於國)<서전3:51a>
 다. 太保 | 밧 芮伯으로 다 進히야 서르 揖히고(太保 | 暨芮伯으로

9) ‘以’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번역한 ‘써’는 ‘로 써’의 구조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구조에도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가. 몸을 正케 히여 써 物을 正케 홀디니라(正己以格物이니라)<소학5:59a>
 나. 써 學을 히는 배 므스 일인고(所以爲學者 | 何事오)<소학5:112a>
 다. 써 확실히 의론이라 히노라(常以爲確論이라 히노라)<소학6:46b>
 라. 수와 당으로 써 올애(隋唐以來예)<소학6:8b>

특히 (가)의 경우는 20세기의 신문에도 많이 나타나 있다. 예) 高山青年會主催인 一般旧家庭婦女夜學會의 情況은 本紙로써 累次報道되얏거니와 이제 漫筆者는 그 綱領을 들어 써 將來를 促進코져 하노라(독립신문, 1922년02월 08일자 肉体보다는 精神)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로 미루어 정리하기로 하겠다.

咸進相揖 ㅎ고) <서전5:49b>

(17)은 ‘興’에 대응하는 ‘로 다뭇’의 경우인데 ‘다뭇’이 동사의 어간이었다 하더라도 ‘로 다뭇’은 문법화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18)은 ‘使’를 번역한 예문들인데 현대 한국어에서도 문어체로 사용하고 있는 구성이다. (19)는 ‘及’에 대응되는 예문들인데 ‘로 밋’의 경우도 나타나고 ‘밋 ~로’의 경우도 나타나므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구성은 전형적인 번역투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언어 질서에서 멀리 떨어진 것들이 후에 소멸되고 일부는 남아 있었을 뿐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추후로 미루고자 한다.

IV. 맺음말

본고는 한국어의 ‘로써’가 문법화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나서 문법화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중세시기의 ‘로 써’가 출현 양상을 논의하면서 ‘로 써’가 한문의 ‘以NP’ 구문을 지나치게 번역한 결과라 밝혔다.

구체적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격 지배 변동 규칙은 ‘로써’의 형성을 설명할 때 일리가 있지만 중세 시기에 흔히 볼 수 있는 ‘로 드려, 로 더브러, 로 히여곰, 로 다뭇, 로 밋’ 등을 설명할 때 설득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사가 의미 약화되어 격지배 변동이 일어났다고 말할 때 무엇보다 우선 동사 의미 약화의 기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2) ‘로써’는 [NP1을 NP2로 써]의 구조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주장은 역

시 왜 ‘로 씨’가 한 구성소로 문법화될 수 있는지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NP2로’와 ‘씨’는 인접하고 있다는 해석도 더 무리한 듯하다. 이와 비슷한 구문 특성을 가진 ‘삼다’는 왜 ‘로 삼아’로 변하지 않고 ‘N삼아’의 구성으로 변해야 되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동일한 분포, 동일한 기능, 동일한 형태의 ‘로’를 격 표지와 서술적 기능소로 동형이의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법 기술의 복잡성을 더하게 된다.

(3) ‘로’가 ‘씨’에 선행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 ‘로’를 대상성을 가진 존재였음을 설정하는 방법은 ‘로’와 ‘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더욱 큰 부담을 초래한다.

(4) 중세시기의 언해 문헌 자료를 살펴보면 ‘로 씨’ 중의 ‘씨’는 모두 한문의 ‘以’를 지나치게 번역한 결과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의미적으로는 “도구”, “수단”을 나타낼 경우도 있고 “원인”, “시간” 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특히 ‘로 씨’가 아닌 ‘씨 ~로’의 구조가 있는 것은 더욱 ‘로 씨’가 문법화되어 형성된 것이 아님을 검증할 수 있다.

문법화는 본래 통시적인 문법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이었지만 근래 들어서는 문법화의 공시적인 기여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법화의 특성으로 여겨졌던 의미의 변화, 기능, 범주의 변화, 재분석, 일방향성 등은 그 어느 것도 문법화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한 시대의 언어는 점진적인 변화가 포함된 공시태인 것이다. 사실 문법화에 대한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의의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공시적인 언어 상태가 가질 수 있는 역동성에 관심을 가지게 해 준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를 연구할 때 단지 언어 내부에서만 규명하면 안 되고 언어 외곽에서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곽에서 변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언어의 진실에 가까우리라 생각한다.(이지양, 2003:219)

본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씨’가 만약에 부사어라면 왜 반드시 ‘로’ 뒤에 후행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냈던 ‘로씨’가 어떤 과정을 거쳐, 또는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까지 “수단, 도구”의 의미만을 나타내게 되었는가, 또 중세시기에 나타난 ‘로 드러, 로 더브러, 로 히여곰, 로 다랏’ 등은 ‘로 씨’와 같은 패턴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등등 문제들이다. 이는 필자가 향후 연구 과제로 삼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근, 『표준중세국어문법론(개정판)』, 집문당, 2007.
- 남풍현, 「『두시언해』 주석문의 ‘-로’에 대한 고찰: 국어에 미친 한어의 문법적 영향을 중심으로」, 『단국대논문집』 6, 1972, pp.7-30.
- 박진호, 「15·16世紀 諺解 文獻에서 ‘所以’의 翻譯 樣相」, 『韓國學論叢』 4, 2008, pp.397-437.
- 서종학, 「中世國語 「브터」에 대하여」, 『국어학』 1, 1983, pp.169-191.
- 안병희, 「중세국어 연구 자료의 성격」, 『어학연구』 9, 1973, pp.75-80.
- 안주호, 「동사에서 파생된 이른바 ‘후치사류’의 문법화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구 말)』 19, pp.133-54.
- 윤용선, 「15세기 언해자료와 구결문」, 역락, 2003, pp.41-48.
- 이영제, 「‘로씨’의 문법화 재론 -통시 형식 통사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생성문법연구』 22-3, 한국생성문법학회, 2012, pp.625-643.
- 이지양, 「문법화의 이론과 국어의 문법화」, 『정신문화연구』 26-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3, pp.211-239.
- 이현희,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1994.
- 임창국, 「‘-로씨’의 문법화 -복합술어에서 후치사로」, 『생성문법연구』 18-2, 한국생성문법학회, 2008, pp.255-268.
- 정제환, 「언해문의 한문 허사 번역에 관한 연구: 『論語諺解』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한용운, 『국어의 조사화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홍운표, 『십오세기국어의 격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9.
- _____, 『近代國語 研究(I)』, 태학사, 1994.
- 황국정, 『국어 동사 구문구조의 통시적 연구』, 제이앤씨, 2009.
- _____, 『경주 지역어의 대상성 ‘-로’ 구문에 관한 연구』, 『한국어학』 50, 2011, pp.261-288.
- _____, 『현대국어의 필수적 ‘-로’ 논항의 실현 원인』, 『국어학』 63, 2012, pp.341-360.

Abstract

A Reargument about the Grammaticalization of “-rosseo”

Yang, Yan

This paper pursues a study on varied syntactic structures of “rosseo” that appear in literatures and points out that formation of “-rosseo” is not a result of grammaticalization, but the result of literal translation from Chinese literatures. Neither case-change theories nor reanalysis theories can explain the semantic weakening of the verb “sseuda”. Although the theory of small clause & complex predicate/verb clearly accounts for the collocation relation between “ro” and “sseo”, reading into ‘ro’ a copular function, will bring even greater complicacy in terms of grammatical explanation. This is also the case if function of objective is given to “ro”. The paper adopts an approach that attaches importance to historic periods and ways of translation in terms of the literatures used for the study, and holds that literal translation (over-translation) of the structure “以NP” in Chinese literatures did bring “-rosseo” to Korean literatures, which had been literally translated from the Chinese since the 16th century. In this structure, “ro” is a grammatical form corresponding to “以” in Chinese literatures; “sseo” carries its lexical meaning, and is called transitional word. This happens not only in the translation of the “以NP” structure, but also occurs in the translation of syntactic structures in Chinese literatures concerning “與”, “使”, “及”, etc., which further strengthen the argument that the formation of “rosseo” is not a result of grammaticalization, but a result of literal translation from Chinese literatures.

Key Word : grammaticalization, case-change, reanalysis, literal translation, transitional word

양언(楊彦)

소속 : 중국 소주(蘇州)대학교 한국어과 교수

전자우편 : yangyan123@hanmail.net

이 논문은 2016년 10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12월 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